

##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에 관한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sup>1)</sup>

### 전 미 경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 Analysis of Household Textbooks for Middle-High School in Colonial Age

Jun, Mi-Kyung

Dongguk Univ.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structor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xternal forms of the household textbooks and also the contents of them used at girls' middle-high school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ing over Korea. To this end, 8 household textbooks published from 1928 to 1937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household subject had become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s to girl students as the practical uses were emphasized in educational area during the period. As a result, the classes of the household were the second in hours, following the class of Japanese (the national language) to girl students.

2. The contents of the household textbooks were intended to contain 'the modern' and 'the newest'. The students were also suggested to apply the contents of the textbooks to real home life. Many pictures, photos and illustrations were included in household textbooks to help students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subject.

3. The purposes of the household class were the reformation of the living conditions and home economics.

4. The ex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 textbooks during the period were as follows.

- Written in Japanese vertically and the size of the textbook was A5 (150/210) with pulp paper of good quality

- The type style of the body of the textbooks was Ming-style type- The sequent order of the textbooks was the outer cover, the title page, pictorial, introduction, table of contents, the body, appendix and the back cover.

1)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제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교신처자: 전미경(preba@chol.com)

5. The household textbooks consisted of the first volume and the second volume. The first volume contained clothing and textiles, food and nutrition and housing. Taking care of the aged, nursing, child care, household economy and home management were included in the second volume.

6. The household textbooks were designed to make women the housewives.

**주제어(Key Words)** : 식민지 시대(Colonial Age), 여성교육(Woman Education), 가사교과서(Household Textbook), 생활개선(Life Reformation), 주부(Housewife)

## I. 서 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여성교육은 주지하다시피 1886년 스크렌튼 부인에 의해 설립된 이화학당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화학당은 배재학당과 같은 교파의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에서 세운 학교로 단 한명의 고아를 학생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스크렌튼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 모집이었다. 파란 눈의 외국사람이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소문 등, 선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스크렌튼은 학교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민비는 이 학교를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 이름 짓고 협판을 보냈는데 당시의 사액 협판이란 단순한 정부 공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이 협판 덕분으로 이화학당은 가난하고 부모 없는 소녀들을 모아 한글과 성경 공부를 시킬 수 있게 되었다(정재걸 외, 1994: 14).

그러나 개화기 여성교육에 대한 뜨거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sup>2)</sup>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자각이 없었고, 학비가 없었으며, 여자교원이 없었고, 무엇보다 여학생을 위한 여학교가 없었다. 1909년 당시 전국 59개의 관립 및 감종 공립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수는 겨우 130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보조지정보통학교에는 전국 31개교의 여학생을 모두 합해도 52명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소학교에 다녔던 여학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김재인 외, 2001:74). 이렇게 출발한 여성교육은 불과 20여년이 지난 후가 되면 보통학교는 물론이고 고등보통학교는 졸업해야 "남에

게 모욕과 천대는 면하면서 일생을 지"내게 될 정도로 조선의 교육풍토는 급격히 변화한다.<sup>3)</sup> 학교에서 공부하겠다는 예비 학생들이 넘쳐나면서 치열한 입시 경쟁이 생겼으며 연일 학교의 부족을 개탄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교육 풍토의 변화와 관계없이 여성의 교육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여학생은 신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여행(女行)이었던 침선, 재봉, 수예를 학습해야 했으며, 이러한 일면은 여성교육이 조선 사회에 안착될수록 강화되고 있었다. 사실 여성교육의 시작은 한국 여성사에 중요한 발자취이며, 따라서 여성교육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여성교육에 대한 실체를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교육이 이루어진 '현장'에의 접근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론으로서의 여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여학생들의 손에만 들려졌던 재봉·수예·가사와 같은 교과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당시 교육 현장의 한가운데 있었던 '가사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사회에서 가정교과교육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9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창립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그 전에는 대한가정학회의 활동에서 보이는 것처럼 1959년부터 1997년까지 발표된 총 논문에서 가정과 교육에 관련된 논문은 전체의 1.82%에 불과하였으며, 중·고등학교 가정과 교육에 관한 것은 전체 1,535편 중 단지 19편에 불과하다(윤인경, 2001:74).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집한 '교과서'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미흡하다. '교과서'를 분석 텍스트로 하고 있는

2) 개화기 남녀동등의 주장에 힘입어 여성교육의 당위성을 설파한 계몽담론에 대한 논의는 전미경(2002) pp.6-7 참조.

3) 김한례, "가난한 딸의 탄원", 『신여성』7권10호(1933.10), pp.52-55.

대표적 연구로는 윤인경(1996a; 1996b; 1997; 1998)의 연구를 비롯하여 박정원(1996), 최정혜(1997)가 있으며, 의·식·주 등 교과서에 나타난 특정한 교과영역에 대한 분석으로는 이은순·조재순(1993), 장현숙·조필교(1995), 정미경(1998), 이영숙·김영남(2000), 최정혜(2002), 이정규(2003)의 연구가 있으며, 국제간의 비교를 시도한 박상치(1987), 차미경(1997)의 연구가 있다. 또한 교과내용 및 교육목표의 사적 변화를 고찰한 연구로는 전경선(1999), 이연숙(2001), 왕석순(2003)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교과서를 텍스트로 한 이상의 연구는 모두 해방 후 특히 1980년대 이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가정·가사 교과목이 처음 만들어진 '기원'의 공간인 개화기와 식민지 시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여성교육을 이해하는 데 여학생들만 이수했던 과목에 대한 '교과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재봉, 수예, 가사 등의 일련의 교과목에 대한 이해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위에서 탄생한 것이었고, 교과서는 이러한 일면을 그대로 담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 교수·학습 자료로서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윤인경, 1996a). 그러하기에 조선의 교육정책에 일본인의 간섭이 시작되기 무섭게 실천된 것이 민간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에 대한 검열이었다. 그것은 교과서가 단순히 표준적인 지식의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회구성원을 양산하는 기제였기 때문이다. 즉 교사는 교과서를 통해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교과서 제작은 철저하게 식민지 교육 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교과목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여성교육의 목표 및 대다수의 여성의 가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염두에 둘 때 '가족'에 대한 일제의 전략적 접근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여성교육의 시발지인 개화기·식민지 시기에 여학생만이 이수해야 했던 일련의 교과목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식민지 시대 발간된 가사교과서를 외형적·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교과서 분석에 앞서 우리사회에서 전개되었던 근대적 학교교육을 간략하게 언급한 뒤 가사교과서 편찬 및 견인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식민지 시대 교육정책

1885년 배재학당의 설립을 계기로 서양식 근대 학교가 개설되면서 조선의 교육은 서당중심의 교육에서 학교교육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진다. 배재학당은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에서 세운 학교로 그 사명을 맡아 일한 선교사는 아펜젤러였다. '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립된 배재는 그 목적을 기독교인의 양성과 국가 인재를 배양하는데 두었다.

그러나 우리의 근대적 교육개혁의 제도적 출발은 '갑오개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윤식·김홍집·유길준 등이 중심된 1894년의 갑오개혁은 그 개혁의 일환으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내정개혁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교육업무를 담당할 정부기구로 '학무아문'을 두었는데, 그해 7월 학부아문고시에서 근대교육의 필요성이 논해진다. 이후 고종은 1895년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홍령14조(1895.1)'와 '교육입국조서(1895.2)'를 반포한다. 무엇보다 당시의 교육관련 법령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에 관한 규정일 것이다. 신식 학교 교칙대강(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목이 설정되고, 그 교과목에 따라 교과용 도서가 편찬, 간행,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1894년(고정 31년)의 '교육조서'에 근거한 신식 학교교육을 위한 윤음(輪音)이 반포된 이후의 일이다(이승구, 2001:4).

이후,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일컬어지는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인이 학부참여관으로 배정된다. 이것은 조선의 교육정책이 '식민지 지배'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조선의 교육에 대한 일본의 간섭은 본격화 된다. 이렇게 볼 때 조선의 학부행정은 1905년부터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 연구의 초점이 되는 식민지 시대의 교육정책을 무단통치기, 문화통치기, 민족말살통치기로 구분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자 한다.

#### ① 무단통치기(1910-1919)

일제는 합방 후 식민지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911년 8월 22일 '조선교육령'을 반포한다. 조선의 모든 교육내용과 그 자료인 교과서에 관한 총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교육령은 제1조에서

이 법령이 “조선에서의 조선인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종래의 일본어 교과목이 ‘국어’로 됨과 동시에 기존의 국어 교과목을 ‘조선어’로 하였다. 더불어 일제는 어문교과 뿐 아니라 모든 교과서를 일본어로 만들었으며, 일본식 용어를 쓰면서 교과목의 교재와 교과 학습 단원제(單元制)와 그 내용도 조선의 자료나 세계적 자료를 넣지 않고 일본식 자료를 사용하였다(이승구, 2001:6-7). 한편, 1911년 10월에 공포된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에서는 “정숙하고 근면한 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대한 법적제도를 정비한다(9조).

### ② 문화통치기(1919-1931)

일제는 조선의 학제를 일본의 학제와 동일하게 한다는 ‘내지(内地) 준거주의’에 의한 학제개편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1922년 조선교육령을 개정(제2차 조선교육령)·공포하였다. 이 개정 교육령에서 초등교육 기관으로 보통학교(소학교라 칭함), 중등교육기관으로 고등보통학교(중학교라 칭함)와 여자고등보통학교(고등여학교라 칭함) 및 실업학교, 고등교육기관으로 전문학교와 대학을 두었고,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 사범학교를 설치하였다. 또한 각 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보통학교는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으로, 실업학교는 2-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결과 보통학교에서 전문학교까지 11-12년이던 교육연한이 11-16(17)년으로 연장되었다. 또 초등교육 양성기관으로 사범학교를 신설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학제도를 신설하였다(이혜영, 1997: 17).

### ③ 민족말살통치기(1931-1945)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일본은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간주하면서 전시체제를 본격화한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에 동화시키기 위한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및 전시체제로의 협력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1938년 조선교육령을 개정(제3차 조선교육령)·공포하였다. 이 교육령은 일본어 보급 교육을 강화하여 전시 산업요원으로의 인력 동원, 지원 병 유도, 창씨개명을 통해 전쟁 일선에 내몰 준비교육을 위한 법령으로서, 보통학교를 소학교(심상소학교 6년, 고등소학교 2년)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5년)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5.4 혹은 3년)로 학교명칭을 고쳤고, 교과목 및 교수요목 등을

조선어 이외의 것은 한일 양국의 것을 동일하게 하였다(이혜영, 1999:17-19).

이어 1941년에 제4차 조선교육을 개정·공포하고 1943년부터 시행을 보게 되었는데, 이는 전시 교과 통합교육령으로 국가 총동원 교육령에 해당된다. 즉, 국민학교령을 제정하여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었고, 교과목을 통합하여 그 수를 줄였으며, 학도 동원령을 내려 각종 일터에 투입했다. 그리고 5년제 중학교를 1년 단축하여 졸업시킨 뒤 산업일선에 투입하거나 청소년 특공대로 내몰기도 하였다(이승구, 2001: 7).

## 2.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

갑오개혁에 의해 조직된 학무아문의 편집국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및 도서의 검정 및 인가를 담당하게 되지만, 1894년 6월에 공포된 교과서 관련 규정에는 단지 ‘교과용 편집’을 담당한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정규 학교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가 간행된 시점은 1895년부터라 할 수 있다. 1895년 학부에서는 『국민소학독본』과 『소학독본』을 간행하였고, 학부 관제에 교과서 업무를 규정, 공포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정부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교과서 편찬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게 하여 일본인 전담관 주도 아래 수신, 국어, 일본어, 한문, 이과, 도화의 6과목 교재개발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의 한국침략의 단초가 되었다.

우리 정부 주도의 교과서 업무가 일본 제국주의 정착에 따라 일제의 식민지 교육업무로 변질되자 민간인에 의한 교과서 편찬, 발행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친일 내각은 이러한 교과서의 편찬, 발행 및 사용을 억제하다가 금지, 제제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1908년 8월에 공포한 ‘교과용 도서 검정 규정’과 1909년 2월에 공포한 출판법 등이 그것이다. 또한 1910년 8월 합병조약을 발표하고, 11월에 한국인이 저작한 각급 학교의 각종 교과서를 몰수하고 발매를 금지했으며, 학교교재로 쓰지 못하게 폐기령이 내렸다(이승구, 2001:4-12). 이제 식민지 시기 교과서 및 가사교과서와 관련된 구체적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11년 10월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에서 ‘교과서’와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교과용 도서는 “조선총독

〈표 1〉 기인가교과용도서 일람 : 가사과

학교종별	도서명	권책	저역자	발행소	발행, 검정년월일
1925.4-1927.7					
여고보	현대가사교과서	상	이노우에 노리코 (井上季子)	문광사	1925.12.21.(수정재판), 1936.1.13.
여고보	가사신교과서	상,하	이시자와 기치마 (石澤吉磨)	집성당	1926.12.24, 1927.1.10.
여고보	응용가사교과서	전(全)	오오에 스미코 (大江スミ子)	대엽구길 (大葉久吉)	1920.9.10.(개정4판), 1920. 10. 21.
여고보, 여상, 각	실지응용 가사교과서	상	요시무라 치즈루 (吉村千鶴)	개성관	1926.1.15.(정정10판), 1926.1.26.
여고보	실용가사교과서	상,하	가사연구회	뇌천광행 (瀬川光行)	1924.12.23, 1925.1.10.
여고보	현대가사교과서	전(全)	개성관	개성관	1925.3.5, 1925.3.20
여고보, 여상	응용가사교과서	상,하	오오에 스미코 (大江スミ子)	대엽구길 (大葉久吉)	1925.12.24(정정6판), 1926.1.2.
1931.10-1932.9					
各女	개정가사교과서	상,하	가정경제연구회	제국서원	1929.4.13(정정4판).
各女	현대수예교본	상,하	신보리 이츠노 (新堀いつの)	개성관	1932.1.5.
各女	실체적 가사교과서	전(全)	가와구치 아이코 (河口愛子)	제국서원	1927.1.15(정정판), 1937.1.20.
私女	현대 가사교과서	상,하	이노우에 노리코 (井上秀子)	문광사	1931.9.20(정정5판).
1932.7.-1933.8.					
여고	수정 신시대가사교본	상,하	오찌키요 (越智キヨ)	성야서점	1932.11.10.(정정재판), 1932.11.26.
사상 (私商)	실천가사신교본	상,하	니시다 히로타로 (西田博太郎)外 三名	제국서원	1932.12.16.
여고	현대가사교과서 재정판	상,하	이노우에 노리코 (井上季子)	문광사	1931.11.27.(수정6판), 1931.12.3.
여고	가사신교과서	상,하	이시자와 기치마 (石澤吉磨)	집성당	1932.10.14(정정17판), 1932.10.21.
여고	신편가사교과서	상	콘도우 코우조우 (近藤耕藏)	광풍관	1930.12.12.(정정4판), 1930.12.17.
여고, 각女	개정최신가사	상,하	쿠라하시 소우조우 (倉橋惣三) 外 六名	부산방	1932.11.15(정정3판).

(출처: 조선총독부 학무국, 『기인가교과용도서일람(既認可教科用圖書一覽)』)

부가 편찬한 도서 또는 조선총독의 검정을 거친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과용 도서가 없을 때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27조). 그러나 학부편집국에서 발행(1910년 1월)한 『교과용도서일람(제4판)』에는 고등여학교용으

로, '가정' 교과에 현공렴(玄公廉) 발행의 『한문가정학』과 『신편가정학』이 등재되어 있으나, 재봉, 수예, 가사에 관한 교과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또 1912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교과용도서일람(6판)』에는 '검정교과용도서', '인가교과용도서' 목록에 가정 관련 교

과서는 없다. 그러나 1915년 『교과용도서일람(9판)』에는 “시세변혁의 결과로 불인가”한다고 하면서 앞서의 현공령이 발행한 『한문가정학』, 『신편가정학』과 함께 『신정가정학』을 ‘불인가교과용도서’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후 1925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는 모두 23과에 이르는 교과명 아래 ① 학교종별, ② 도서명, ③ 권책, ④ 저역자, ⑤ 발행자, ⑥ 발행, 검정연월일 순으로 표시된 『기인가교과용도서일람(既認可教科用圖書一覽)』이 편찬되었다. 여기에는 ‘가사과’와 ‘재봉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교과목이 실려 있었다. 이후 1931년 도서일람에는 큰 편화가 없지만, 1932년 발행된 인가교과용 도서목록에는 ‘재봉과’가 빠지면서 ‘가사과’에서 사용될 수 교과서만 수록되어 있었다(〈표 1〉 참조).

한편, 1937년 총독부가 발행한 『본부편찬교과용도서일람』에는 『여자수예』가 한권 들어 있었으나 대부분 수신서와 국어(일본어-필자), 독본류, 산술, 역사, 지리 등의 교과목만 있을 뿐 가정관련 교과목 목록은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총독부는 가사교과서의 편찬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듯 하다. 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가 없을 때는 총독부가 인가한 교과서를 사용해야 하며, 그것이 없을 때는 당시 일본의 교육기관인 문부성의 검정을 받은 것도 교과서로 채택할 수 있었다. 1922년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조항에서 “조선총독부 혹은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는 여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31조)고 하고 있으며, 1938년의 고등여학교 규정에서도 교과서는 “조선총독 혹은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것”을 사용할 수 있다(40조)고 하였다.

식민지 시대는 물론 개화기에도 문부성의 검정을 받은 일본교과서는 그대로 유입되어 조선의 학교에서 사용되었다. 개화기 과학 교과서를 연구한 박종석(1998)에 따르면 개화기에는 조선에서 62종의 과학 교과서가 발간되었지만 75종의 일본 과학교과서가 유입되어 사용되었다고 한다.

### III.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식민지 가사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양적연구의 일

환으로 교과서의 판형, 지질, 색도 등의 외형적 체계와, 교과서의 구성체계 및 자료구성, 각 영역별 교과 내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식민지 교과서에 대한 궁극적 이해는 ‘질적연구’를 통해 가능하다.<sup>4)</sup> 왜냐하면 가사교과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가사교과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과서의 서언과 범례 등의 머리말을 당시의 시대적 맥락 위에서 분석해야 한다. 또 가사교과서의 교과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별건곤』, 『신여성』 등 당시의 잡지를 참조하였다.

한편,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 분석에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가사교과서이다. 그러나 현재 식민지 교과서는 ‘수신’이나 ‘조선어 독본’ 류 등 몇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더군다나 여학생을 위한 가사교과서는 몇 사람의 기증에 의한 기증본만 존재할 뿐 교과서 자체에 접근하기조차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연구가 해방이전의 가정관련 교과서를 처음 분석하고 있는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두면서 우선 이화여자대학교에 소장된 8권의 가사교과서만을 분석하고자 한다(〈표 2〉 참조).

이상의 교과서는 1928년 후반부터 1937년 초에 걸쳐 발행된 교과서로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시기(1922-1937)에 해당되며, 여학생의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여학교, 실업고등여학교, 여자사범학교의 ‘가사’ 교과목을 위한 교과서로 편찬되었다. 또한 이 교과서 모두는 ‘문부성’ 검정인가를 받은 교과서이다. 문부성은 일본의 교육기관으로 이상의 교과서는 일본에서 검인정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교과서는 조선의 여학교에서도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 교과서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도 조선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인가한 교과용 도서 일람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일한 저자의 교과서가 다수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표 1〉 참조).

그렇다면 이 연구는 어떤 연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먼저 가사교과서의 외형적 특징과 교과서의 전체 체계 등을 중심으로 그 물리적 조건에 대한 면

4) 이 연구에서 분석한 질적연구는 담론분석을 의미한다. 담론분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미경(2001), pp.68-70 참조.

〈표 2〉 분석 텍스트

교과서명	학교종별	저자	발행년도	발행처	검정인가	비고
신시대가사교본 하	고등여학교 가사과용	오찌키요 (越智キヨ)	1928.10.24	경도: 성야서점	○	정정재판
현대가사교본 상	고등여학교 가사과용	카이 히사코 (甲斐久子)	1929.10.15	경도: 성야서점	○	정정재판
최신가사교과서 하	사범학교, 고등여학교 가사교과용	.	1930.1.25	동경: 대일본도서주식회사	○	개정판
가사신교과서 하	사범학교, 고등여학교 가사교과용	이시자와 치마 (石澤吉磨)	1930.11.11	동경: 집성당	○	정정15판
신편가사교과서 상	사범학교, 고등여학교 가사과, 실업학교 가사급재봉교과용	콘도 코오조우 (近藤耕藏)	1934.11.20	동경: 광풍관	○	수정6판
실지응용 가사교과서 상	사범학교, 고등여학교 가사과용	요시무라 치즈 (吉村千鶴)	1935.11.5	동경: 개성관	○	수정14판
가사신교과서 상	사범학교, 고등여학교 가사과, 실업학교 가사급재봉교과용	佐保會	1937.1.23	동경: 지성당	○	정정4판
가사신교과서 하	사범학교, 고등여학교 가사과, 실업학교 가사급재봉교과용	佐保會	1937.1.23	동경: 중등학교교과서주식 회사	○	정정4판

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범례, 서언, 개정의 서문 등의 분석을 통해 가사교과서의 저자가 말하는 교과서 편찬의도와 편제방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사교과가 당시의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4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가사교과서의 외형적 특징과 전체적 체제는 어떠한가?
2. 가사교과서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3. 가사교과서의 교과내용은 무엇인가?
4. 가사교과서의 교육내용의 함의는 무엇인가?

#### IV. 연구결과

##### 1. 가사교과목의 목표

가사교과서의 머리말의 분석을 통해 가사교과목의 목표를 교과서의 편제방향과 가사교과목의 목적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 1) 가사교과서의 편제방향

###### ① 현대적·최신식의 가정생활 지향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한 가사교과서 8권 중 「실지응용 가사교과서」를 제외하고 모든 교과서의 '제목'에서 표명하고 있는 것이 '신', '최신', '현대'이다. 이것은 가사교과서의 집필방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수사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가사 즉 집안일과 관련해 가장 앞선 최신의 내용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 분석한 교과서 모두가 정정판인데, 저자가 말하는 정정의 이유는 구판이 시대에 떨어진다는 데 있었다. 吉村千鶴(1935)은 초판 발행이후 13번의 개정이 나오는 24년 동안 자신의 교과서가 가장 많은 여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교과서 편찬 취지가 "시대의 요구"에 적절하고 "현대"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적 진보는 교과서 개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실제생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가사교과서는 당연히 최신의 과학적 지식을 가족생활에 접목시켜야 했다. 따라서 그는 5년 만에 다시 교과서를 수정하는 이유를 "과학의 진보와 함께 일상 생활상 응용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최신"의 과학적 진보를 증보한 점은 교과서 저자의 큰 자랑거리였

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는 가운데 가사교과서는 “시대”에 적응하여 “최신 과학의 연구·발명의 결과”를 취하여 새롭게 개정되고 있었다(작가미상, 1930).<sup>5)</sup>

### ② 실용적·응용적 측면의 강조

가사교과의 교과내용은 과학에 밝혀진 지식을 실제의 가정생활에 ‘응용’하여 쓸모 있도록 즉 ‘실용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했다. 그러므로 식민지 시기 가사교과서에서 ‘실용성’과 ‘응용성’은 매우 중요한 편제방향이었다. 가사교과는 가정생활을 전통의 구습에서 벗어나게 하여 나날이 변화하고 진보하는 ‘시대’에 순응하여 가정생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越智基요, 1928; 甲斐久子, 1929). 다시 말해 가사교과서는 “가사에 대한 제반의 근본적 지식을 제공하고 또한 이를 실제상에 응용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함이 제일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작가미상, 1930).

### ③ 이해의 증진을 도모

저자들은 학생들이 교과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말한다. 그 일환으로 분석한 가사교과서는 기타의 다른 교과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림이나 사진 등의 삽화와 도표를 많이 첨부하였고, 동시에 본문 밖에 교과내용을 요약하거나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등 많은 참고자료를싣고 있었다. 특히 吉村千鶴(1935)은 삽화는 “생도의 이해를 돋고, 흥미와 기억을 증진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기에 삽화의 선택에 신중을 가하였으며, 보다 좋은 삽화를 위해 실물의 그림과 사진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고 말한다. 가사교과서는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변의 것에서부터 점차 복잡한 것으로 교재를 배열하고 있으며(佐保會, 1937),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로 혹은 평이한 서술체를 지향하면서, 간명하게 교과내용을 제시하려 하였다(越智基요, 1928; 작가미상, 1930; 吉村千鶴, 1935; 佐保會, 1937).

### ④ 교수의 편의를 도모

가사교과서 저자들은 교과내용의 교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사가 교과내용을 각 지방의 특색, 학습자의 정도, 학습자 가정의 상황 등에 맞추어

가르쳐도 큰 무리가 없도록 편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었으며, 특히 교과내용의 배열에서는 ‘계절’을 고려하였다(越智基요, 1928; 작가미상, 1930; 石澤吉磨, 1930; 近藤耕藏, 1934; 吉村千鶴, 1935; 佐保會, 1937).

### ⑤ 타교과목과의 관계를 고려

‘현대의 현대적 가족생활’을 지향하는 가사교과서는 그 특성상 응용과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실제생활에 응용적이어야 하는 가사교과목은 다른 교과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佐保會(1937)는 가사의 교과내용의 학습을 위하여 기초적 혹은 보조적 지식을 “수신·국어·수학·이과·지리·역사·재봉·체조”에서 학습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의 학습내용은 “가사과 연구의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자들이 말하는 가사교과와 가장 밀접한 과목은 ‘이과’와 ‘수신’이었다. 가사교과목은 이과에서 배운 ‘지식’과 수신에서 배운 ‘덕목’을 ‘가사(家事)’에 접목시켜 “응용공부의 능력을 양성”해야 했다(石澤吉磨, 1930; 작가미상, 1930; 佐保會, 1937). 특히 이과<sup>6)</sup>는 가사교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었다.

## 2) 가사과의 목적 : 생활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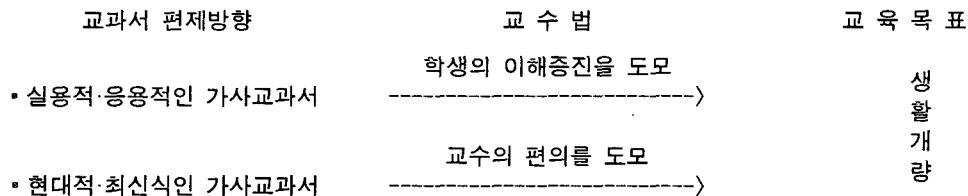
近藤耕藏(1934)은 “서언”에서 교과서를 저술하는 과정에서 봇꽃에서 넘쳐나는 “국민의 생활개조”에의 뜨거운 열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음을 고백한다. 이처럼 가사교과서 저자들이 말하는 교과목적은 가정의 “생활개량”이었다. 다음은 吉村千鶴(1935)이 말하는 “가사과의 목적”이다.

가사과는 의식주의 일은 물론, 노인부양, 자녀양육을 시작으로, 금전의 출납, 환자의 간호, 친척·지인과의 교제 등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전부 관리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것을 실제에 응용하는 것을 담당하여 균검·질서·청결 등의 좋은 습관을 얻는 것을 목적하는 교과이다. (吉村千鶴, 1935)

가사교과는 가정생활 전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5) 1930년 1월에 발간된 『최신가사교과서 하권』에는 판권면이 낙장되어 저자를 알 수 없다. 이하 작가미상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6) 고등보통학교에서 이수 받는 ‘이과’ 교과목의 교육요목은 다음과 같다. “이과는 천연물 및 자연현상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자연법칙과 자연의 상호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시키며 일상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이과는 중요한 식물, 동물, 광물에 관한 일반 지식, 인체의 구조, 생리 및 위생의 대요, 중요한 물리·화학상의 현상 및 법칙, 기계의 구조 및 작용, 원소 및 화합물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하며, 편의에 따라 실험을 부과할 수 있다.” (여자고등보통학교규정 16조, 1922년)



〈그림 1〉 가사교과목의 목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실제의 가정생활에 "응용"하게 하여 "근검·질서·청결" 등의 좋은 습관을 길러 가정생활을 개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즉 가사교과는 "가정생활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교과목이었다(越智基よし、1928).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활개량은 "생활의 합리화"를 의미한다(近藤耕藏、1934). 그것은 전래의 구식을 버리는 것이었기에, 가사교과는 집안의 잡다스러운 일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과학의 폐거로 획득된 신지식은 앞으로의 생활개량을 가져올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겼다. 그러므로 의·식·주·간호·육아에서 소개되고 있는 고가의 제품들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낯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삽화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이유 역시 '생활개량'에 있었다.

(개정된 본 교과서는) 삽화·사진 등도 본문에 상용하도록 새롭게 바꾼 것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거의 설비·기구 등 필요 이상으로 새로운 것이나 고가의 것을 살는 것이 지방의 생활정도에서 볼 때 오히려 부적당하다고 비난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생활의 향상을 충족하고 가사의 개선을 도모하기에 있어 장래 "이처럼 하고 싶다"라는 기대 아래에 그 일례를 보이며, 가능한 한 우량한 것을 알게 해야 하므로 보통 혼한 것을 생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고 생각됩니다. (작가미상, 1930)

이상에서『최신가사교과서』의 저자는 일상의 가정생활과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각 가정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생활개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교과내용으로 선택하

고 있다고 하면서, 보통 일반에서 보게 되는 "기구류"는 생략하고 "가능한 한 새로운 것", "앞으로의 가정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을 넣는다고 말한다. 이는 "삽화를 보는 것이 일상생활의 개선을 재촉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말하는 가사교과목의 목표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 2. 가사교과서의 외형적 특징과 교과서의 체제

### 1) 외형적 특징

본 연구에서 외형적 특징이라 함은 교과서의 물리적 특성을 말한다. 이제 가정·가사교과서의 외형적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차미경, 1991; 윤인경, 1996a; 1996b; 1997; 1998)를 참고로 하여 판형, 지질, 서체, 색도, 단, 제본 등을 살펴보자 한다.

1911년 조선교육령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를 일본어로 제작하도록 했다. 따라서 가사교과서 역시 일본어로 쓰였으며 세로쓰기의 조판형식으로 되어 있다. 판형은 국판(A5)<sup>7)</sup>이나 크게 '150×210'과 '150×220'으로 나눠진다. 당시 도화, 공작 등의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과서는 국판이었다. 지질 역시 비교적 좋은 쟁지류에 속하는 중질지<sup>8)</sup>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림이나 사진 삽화의 경우 아트지<sup>9)</sup>나 백상지<sup>10)</sup>를 사용하였다. 서체는 모든 교과서가 본문의 경우 명조체로 되어 있으나 편·장·절의 제목은 고딕체를 사용하고 있다. 색도는 甲斐久子의 『현대가사교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겉표지와 속표지는 2도이고, 본문은 먹색단도로 되어 있다. 단은 모두 1단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참고자료가 실려 있다. 교과서에 따라 네모 테두리 안에 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이때에도 참고내용은 상단에 수록되어 있다.

7) 규격판의 A5판(148×210mm)에 가까운 크기로 완성품은 152×218mm이다.

8) 표백 화학펄프에 기계펄프를 섞어서 제조한 중질 인쇄용지.

9) 양면을 합해서 1m<sup>2</sup>당 40g 전후의 도료를 도공하여 정밀인쇄가 되도록 한 종이.

10) 표백 화학펄프만으로 제조한 고급 인쇄용지.

〈표 3〉 가사교과서 외형적 특징

교과서 명	판형	지질	서체	색도	단	제본
신시대가사교본 하	국판 (150×220)	·본문: 중질지 ·삽화: 아트지	명조 고딕	·겉표지: 2도 ·속표지: 2도 ·본문: 먹색단도	1단	호부상제본
현대가사교본 상	국판 (150×220)	·본문: 중질지 ·삽화: 백상지와 아트지	명조 고딕	·겉표지: 4도 ·속표지: 3도 ·본문: 먹색단도	1단	호부상제본
최신가사교과서 하	국판 (150×220)	·본문: 중질지 ·삽화: 아트지	명조 고딕	·겉표지: 2도 ·속표지: 2도 ·본문: 먹색단도	1단	호부상제본
가사신교과서 하 (石澤吉磨)	국판 (150×220)	·본문: 중질지 ·삽화: 아트지	명조 고딕	·겉표지: 2도 ·본문: 먹색단도	1단	호부상제본
신편가사교과서 상	국판 (150×220)	·본문: 중질지 ·삽화: 백상지	명조 고딕	·겉표지: 2도 ·속표지: 2도 ·본문: 먹색단도	1단	호부상제본
실지응용가사교과서 상	국판 (150×210)	·본문: 중질지 ·삽화: 아트지	명조 고딕	·겉표지: 2도 ·속표지: 2도 ·본문: 먹색단도	1단	호부상제본
가사신교과서 상 (佐保會)	국판 (150×210)	·본문: 중질지 ·삽화: 아트지	명조 고딕	·겉표지: 2도 ·속표지: 2도 ·본문: 먹색단도	1단	호부상제본
가사신교과서 하 (佐保會)	국판 (150×210)	·본문: 중질지 ·삽화: 백상지류	명조 고딕	·겉표지: 2도 ·본문: 먹색단도	1단	호부상제본

교과서에 실린 도표의 경우는 대체로 도표 안의 선을 뺨간색 등으로 처리하여 시작적 효과를 높이고 있었으며, 큰 표는 접은 페이지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사교과서의 제본형식은 모두 호부장(糊付裝)<sup>11)</sup> 형인데, 이러한 제작방식은 교과서를 포함하여 당시 대부분의 출판물에 적용되고 있었던 일반적인 기법이었다(이종국 2001:118).

## 2) 가사교과서의 체제

### (1) 교과서의 집필자 구성

가사교과서의 집필자는 대부분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아마도 사범학교나 전문학교에 재직하는 교수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교과서에서 저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 자신의 직함을 교수나 강사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반면 『가사신교과서』상 하권을 집필한 '佐保會'는 사단법인 단체이지만, 교과

서에서는 이 단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특징은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80년대-90년대 초 가사교과서를 국제비교한 차미경(1991)의 연구에 따르면 교과서 집필진이 한국은 평균 6명, 일본은 평균 48.5명, 미국은 3명, 영국은 10명이다. 당시 교과서는 소단원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는데, 그토록 자세한 내용의 교과서 집필자가 한 사람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2) 교과서의 외적구성 체제

가사교과서의 구성은 ① 겉표지, ② 속표지, ③ 화보, ④ 머리말(서언과 범례), ⑤ 목차, ⑥ 본문, ⑦ 부록, ⑧ 판권면, ⑨ 뒤표지로 되어 있다.

① 겉표지 : 겉표지에는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삽화가 있거나 부분 칼라로 되어 있다. 대개 교과서 제목과 함께 저자 및 출판사가 기입되어 있다.

11) 호부상 제본이란 책 옆매기의 한 방식으로, 철사로 제본하는 방식을 말한다. 책 등에 풀칠을 하여 밀려 굳힌 속장 앞 뒤에 날장으로 된 표지를 대고 속장과 함께 철사로 맨 다음, 이 철사가 덮일 정도의 폭이 좁은 클로스로 등을 쌔 바르는 방식이다. 표지가 잘 뜯어지고 책이 잘 펼쳐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12) 예를 들면, 石澤吉磨와 越智基오는 모두 내향(奈良)여자고등사범학교 교수이며, 吉村千鶴은 동경여자전문학교 강사이다.



〈그림 2〉 가사교과서의 걸표지 · 속표지 · 화보의 예

표지에 쓰인 제목 등은 본문과 달리 가로쓰기이다.

② 속표지 : 속표지에는 교과서의 발행을 둘러싼 자세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다. 즉, 제목, 저자, 출판사 및 출판일, 수정판일 경우 그 판수 및 문부성검정을 받았다는 소견과 함께 어떤 종류의 학교의 교과서 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近藤耕藏(1934)의 『신편가사교과서』의 경우, 속표지 맨 위쪽에 "문부성 검정제 소화구년십일월책일, 사범학교·고등여학교가사과·실업학교가사 및 재봉과교과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속표지에는 걸표지와 마찬가지로 삽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꽃그림 등이 삽입되어 있다.

③ 화보 : 여기서 화보라 함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 한 면을 가득 채운 그림이나 사진을 말한다. 분석한 교과서 8권 중 4권의 교과서가 본문 앞에 커다란 화보를 싣고 있었다. 예를 들면, 『신시대 가사교과서』에는 밀레의 "만종"이, 『신편가사교과서』에는 "여색환(餘色

環)"이 실려 있다.

④ 머리말(서언과 범례) : 교과서에 따라 머리말은 서언과 범례가 모두 실려 있거나 둘 중의 하나가 수록되어 있다. 개정판의 경우는 서언 대신에 '전판의 개정 서(序)', '개정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개정취지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서언에는 교과서의 지향 점과 함께 교과서의 특징 등이 기술된 반면 범례의 경우는 번호가 매겨져서 교과서의 발간 취지와 주의 사항 등을 기술하고 있다.

⑤ 목차 : 목차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은 물론 소단원 아래의 세부적 단원까지 기입되어 있다. 목차는 짧게는 2쪽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7~8쪽 분량이다. 그러나 石澤吉磨(1930)의 『가사신교과서』 목차는 무려 16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⑥ 본문 : 본문의 내용은 교과서의 '제목'을 기입한 후 직접 단원표시 아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경

〈표 4〉 가사교과서 부록

교과서명	부록
신시대가사교본 하	가계부기 예(일용장(日用帳)과 회장(賄帳))
현대가사교본 상	
최신가사교과서 하	제계서식(諸屆書式), 가계부기
가사신교과서 하	가계부기 예(회장(賄帳), 일기장(日記帳), 연계표(年計表))
신편가사교과서 상	식품분석표
실지응용가사교과서 상	식품분석표
가사신교과서 상(佐保會)	각종식품중의 비타민 함유량비교표, 식품분석표
가사신교과서 하(佐保會)	

〈표 5〉 가사교과서의 정가

교과서명	정 가
신시대가사교본 상 / 하	70전 / 65전
현대가사교본 상 / 하	67전 / 55전 1930년 임시정가 1원 9전 / 90전
최신가사교과서 하	.
가사신교과서 상 / 하 (石澤吉磨)	1원12전 / 1원3전
신편가사교과서 상 / 하	1원10전 / 1원10전
실지응용가사교과서 상	1원
가사신교과서 상 / 하 (佐保會)	93전 / 95전

우가 많았다. 그러나『신편가사교과서』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 '여자와 가사과'란 제목으로 여학생이 가사과를 학습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현대가사교본』과 佐保會의『가사신교과서』상권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 서론을 삽입, 가사교과서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⑦ 부록 :『현대가사교본』과 佐保會(1937)의『가사신교과서』하권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6권의 교과서 모두에는 부록이 있다. 보통 상권의 부록에는 '식품분석표'가, 하권의 부록에는 '가계부기'의 일례가 실려 있다. 그러나 부록이 없는 두 권의 교과서도 단지 '부록'이 없을 뿐 다른 교과서와 교과내용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왜냐하면『현대가사교본』상권에는 '식품분석표'가, 佐保會의『가사신교과서』

하권에는 가계부기의 일례가 본문 안에 많은 지면이 할애된 채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과서의 저자들은 많은 페이지에 걸쳐 식품분석표와 가계부기의 일례를 수록하고 있었다. 그것은 식품분석표를 보면서 영양적인 면을 고려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일과 가계부에 그날의 수입과 지출을 기입하면서 예산에 맞게 합리적·계획적으로 가정경제를 관리하는 것은 주부의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이다.

⑧ 판권면 : 교과서의 마지막 장에는 저자인지와 함께 교과서명, 저자, 발행소, 발행인, 인쇄자, 정가, 발행일이 기록되어 있다. 가사교과서의 주된 특징은 그 발행소가 일본의 경도에서 발행된『신시대가사교과서』와『현대가사교본』을 제외하고는 전부 동경에서 출판되었다는 점이다. 또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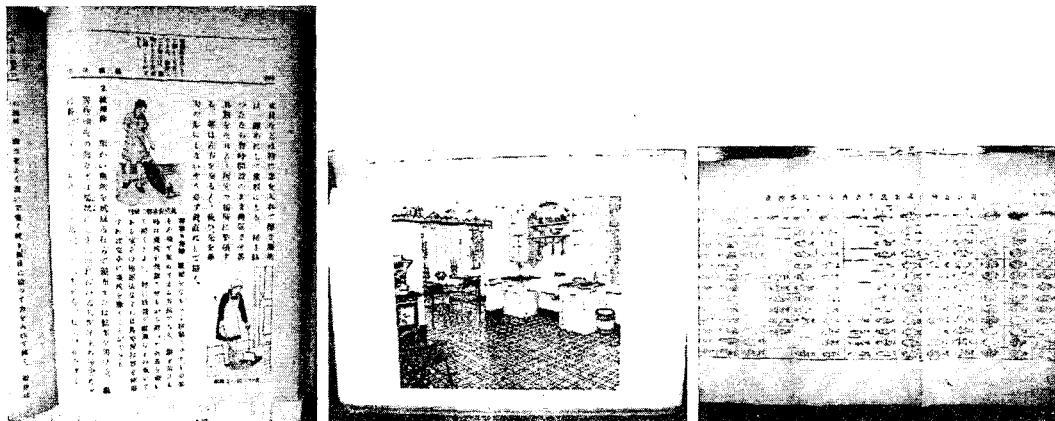
〈표 6〉 가사교과서의 전체적 체제

교과서명	속표지	화보	머리말		목차	본문	부록	판권면
			서언	범례				
신시대가사교본 하	○	○	■	○	○	○	○	○
현대가사교본 상	○	○	○ <sup>13)</sup>	○	○	○	■	○
최신가사교과서 하	○	■	○	○	○	○	○	<sup>14)</sup>
가사신교과서 하(石澤吉磨)	■	○	■	○	○	○	○	○
신편가사교과서 상	○	○	○	■	○	○	○	○
실지응용가사교과서 상	○	■	○ <sup>15)</sup>	■	○	○	○	○
가사신교과서 상(佐保會)	○	■	○	○	○	○	○	○
가사신교과서 하(佐保會)	■	■	■	○	○	○	■	○

13) 서언이 본문의 제1장으로 현재되어 있다.

14) 낙장이라 저자 등을 알 수 없다.

15) 정정14판임에도 불구하고 "13판 개정의 序"와 함께 전편의 서언이 있으며, 본문 앞에 '서론'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3〉 가사교과서의 본문 · 삽화 · 도표의 예

교과서의 정가는 상승하였다. 1922년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에 따르면 여학생은 최소 12과목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했다(7조). 수업료 외 10과목이 넘는 교과서를 그것도 학기 초 한꺼번에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학부모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더군다나 교과서는 기타 잡지나 단행본보다 고가였다. 1931년 개벽사에서 발행된 『신여성』은 최소 100페이지에서 많게는 16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으로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가는 20전이었고, 1930년 9월에 발간된 『별건곤』 5권 9호의 경우도 총 176페이지에 달하는데 그 정가는 52전이었다. 당대의 단행본으로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인 『사랑의 선물』이 50전, 『사랑의 불꽃』 60전이었으며, 시골장터

에서 국수 값이 10전, 버스 값이 7전이던 시절에 1 원을 전후로 한 가사교과서가 어느 정도 비싼 것이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⑨ 뒤표지 : 뒤표지에는 특별한 기재사항이 없었다.

#### (3) 단원 및 자료구성 체제

가사교과서의 단원은 크게 편, 장, 절의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과 내용이 편, 장, 절의 순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중단원은 경우에 따라 소단원으로 나뉘지는 것이 아니라 소단원을 생략한 채 세부 단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예를 들면, 近藤耕藏(1934)의 『신편가사교과서』 상권의 경우 3편의 대단원, 26장의 중단원, 14절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1편 의복, 제1장 실은 소단원을 생략된 채

〈표 7〉 가사교과서의 단원 및 자료구성 체제

교과서명	단원수			삽화 (그림·사진)	칼라 삽화	표	보충 자료	연습 문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신시대가사교본 하	3편	41장	80절	58	4	20	177	.
현대가사교본 상	4편	30장	77절	83	8	9	132	.
최신가사교과서 하	5편	28장	41절	60	1	14	103	.
가사신교과서 하(石澤吉磨)	5편	30장	90절	76	3	12	156	.
신편가사교과서 상	3편	26장	14절	110	2	16	. <sup>10)</sup>	.
실지응용가사교과서 상	3편	21장	45절	147	0	9	215	.
가사신교과서 상(佐保會)	3편	29장	53절	73	1	14	155	61
가사신교과서 하(佐保會)	5편	30장	35절	60	1	18	109	42

16) 가사교과서는 종질지가 아닌 아트지나 모조지에 삽입된 그림과 사진에는 쪽 번호가 매기지 있지 않다. 또한 각 영역별 쪽수의 합이 본문쪽수와 다른 것은 구체적 영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론' 등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쪽에 두 개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실의 성립, 2. 꼳 실의 종류, 3. 실의 굵기 표시 방법, 4. 실의 강도"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세부단원이 모두 187개에 이른다. 그러나 편-장-절의 자료구성은 식민지 가사교과서의 전반적 특징이라 단언하기 어렵다. 왜나하면 1943년에 발간된 조선총독부의 『중등가사』만 하더라도 편-장-절의 대·중·소단원이 없어지고 모두 23개의 단원이 병렬식으로 편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사교과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삽화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삽화는 사진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지응용 가사교과서』의 경우 전체 210쪽에서 삽화의 수가 무려 215개에 이른다. 가사교과서 외 다른 교과서에도 삽화가 비교적 많이 실려 있지만, 가사교과서는 타 교과서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고 작은 삽화가 많이 실려 있다. 이것은 현대·신·최신 등을 지향하는 가사교과서가 말하는 새로운 교과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의 삽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 본문의 상단에 보충자료를 다수 삽입되었으며, 佐保會의 『가사신교과서』상권에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면화를 수입 하는가"와 같은 연습문제가 실려 있다(佐保會, 1937:8).

### 3. 가사교과서의 교과 내용

현재 8권의 분석 텍스트 중 상하권이 모두 확보된 가사교과서는 '사단법인 佐保會'의 『가사신교과서』뿐이다. 이에, 먼저 佐保會의 교과서를 분석 한 후 다른 교과서의 교과내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佐保會의 『가사교과서』상권의 대단원은 1편 의복(41쪽), 2편 식품(45쪽), 3편 주거(58쪽)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권은 1편 양로(3쪽), 2편 간호(58쪽), 3편 육아(76쪽), 4편 가사경제(31쪽), 5편 일가(一家)의 관리(5쪽)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佐保會의 가사교과서는 크게 8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佐保會의 교과내용은 다른 교과서의 편제와 대동소이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8권의 가사교과서 중 상권이 4권, 하권이 4권인데, 상하권의 가사교과서는 편제의 순서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하다. 즉 4권의 상권은 순서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의복, 식품,

주거의 교과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권 역시 4권 모두가 양로, 간호, 육아, 가정경제, 가정관리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7)</sup> 할애된 지면 수에 따라 저자가 생각하는 각 영역별 교과내용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는데, 모든 교과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양로부분이 매우 간략하게 기술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관리 영역도 비교적 비중이 적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하권에 수록된 교과내용은 대부분 간호와 육아에 치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저자에 따라 각 단원에 할애하는 지면수는 크게 달랐다. 예를 들어, 佐保會의 『가사신교과서』 하권이나 『최신가사교과서』 하권의 경우 간호와 육아편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近藤耕藏의 『신편가사교과서』 경우에는 '주생활'이 차지하는 지면 수가 다른 의생활, 식생활에 비해 적다.

이상의 가사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정리해 볼 때 1930년대 가사교과서는 크게 8영역으로 나뉘진다. 이제 각 영역별 세부 교과내용을 살펴보자하는데, 대·중·소의 단원과 관계없이 내용중심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자 한다. 다시 말해 분석한 하위 영역의 교과내용에서 공통적으로 편제된 교과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8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수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당시 교과서는 검정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교과영역을 8개의 하위 영역으로 범주화 하고 있을 뿐 교과내용은 저자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쪽수에서 가장 많은 쪽수의 교과서와 가장 적은 쪽수의 교과서가 50여 쪽이나 차이나며, 영역별로 살펴보더라도 예를 들어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佐保會의 『가사신교과서』의 경우 5쪽에 불과한 내용이 『최신가사교과서』의 경우 38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식민지 가사교과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각 영역별 교과내용의 분량 역시 저자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각 영역에 언급된 내용을 모두 정리한 후 그 영역의 공통된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 A. 의복 영역

① 의복에 관한 일반적 내용: 의복의 목적 및 옷감의 가치, 의복의 종류(예복, 방문복, 평상복, 짐무복, 상복, 화복(和服-일본 옷), 양복), 의복 선택시 주의

17) 『신편가사교과서』는 상단에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보충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여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짧은 문구가 395개 있다. 후자의 예를 들어보면, 2쪽의 제1편 의복, 제1장 실에는 "실의 성립"의 소제목 아래 제사(製絲)와 방적(紡績)을 설명하고 있는데, 상단에는 이 내용을 "실의 두 종류"라고 정리하고 있다.

〈표 8〉 가사교과서의 단원 및 쪽수<sup>18)</sup>

교과서명	총쪽수	본문 쪽수	의	식	주	양로	간호	육아	가정 경제	가정 관리
신시대가사교본 하권	200쪽	173쪽	.	.	.	4쪽 2%	52쪽 30%	59쪽 34.1%	44쪽 25.4%	17쪽 9.8%
현대가사교본 상권	205쪽	188쪽	54쪽 28.7%	77쪽 41%	55쪽 29.3%	.	.	.	.	.
최신가사교과서 하권	220쪽 <sup>19)</sup>	198쪽	.	.	.	10쪽 5.1%	75쪽 37.9%	67쪽 33.8%	31쪽 15.7%	19쪽 9.6%
가사신교과서 하권(石澤吉磨)	220쪽	192쪽	.	.	.	7쪽 3.6%	65쪽 33.9%	68쪽 35.4%	43쪽 22.4%	16쪽 8.3%
신편가사교과서 상권	241쪽	212쪽	81쪽 38.2%	82쪽 38.7%	46쪽 21.7%	.	.	.	.	.
실지응용가사교 과서 상권	210쪽	211쪽	57쪽 27%	80쪽 37.9%	68쪽 32.2%	.	.	.	.	.
가사신교과서 상권(佐保會)	200쪽	156쪽	44쪽 28.2	48쪽 30.7	60쪽 40.5%	.	.	.	.	.
가사신교과서 하권(佐保會)	195쪽	183쪽	.	.	.	3쪽 1.6%	61쪽 33.3%	77쪽 42.1%	36쪽 19.7%	6쪽 3.3%

사항(위생상, 용의상, 절제상, 유행, 옷감의 지질, 색, 무늬 등), 의복 입는 방법, 화복의 장단, 양복의 장단, 복장시의 주의점.

② 의복재료: 원사(실의 성립, 폰실의 종류, 실 굽기 표시방법, 실의 강도), 섬유의 종류(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인조), 섬유의 감별(탄소, 알칼리, 산, 현미경 등에 의한 검사), 직물의 종류(모직, 목면, 견직, 마직, 교직물, 편물, 석물섬유), 각 직물별 특징(강도, 보온성, 통기성, 흡수성, 흡습성).

③ 의복관리: 세탁제, 세탁물(경수, 연수), 세탁 방법(물리적 압력을 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옷감의 특성에 따른 세탁 방법, 건식세탁, 습식세탁), 세탁 및 정리(헹굼, 탈수, 전조, 끝손질, 다림질, 표백, 풀 먹이기, 접는 방법), 의복 보관(해충 예방법, 의복 보관함, 보관함의 위치), 오염빼기(오염의 종류, 오염제거 방법-물, 알카리, 산(酸) 등으로 오염 녹이기).

④ 염색: 염색의 필요, 염색의 종류, 염색의 방법, 염색의 강도, 염료, 조화 색, 무늬, 유행색.

⑤ 기타 침구와 의복 부속품(모자, 장갑, 목도리, 우산, 양산, 일본식 머선, 신발)의 손질, 정리, 보관.

이상의 의복 편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내용은 옷감의 원사에 관한 내용과 의복관리 부분이다.

먼저 원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사교과서는 '의복재료학'을 연상할 정도로 원사의 특징 및 원사가 직물이 되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佐保會의 교과서 경우는 원사의 현미경 활용 사진 및, 써실과 날실이 얹혀 만들어진 각 직물의 섬유조직도를 첨가하고 있다. 또한 식민지 가사교과서 의복 편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영역은 의복관리에 관한 부분이다. 가사교과서는 세탁의 다양한 방법과, 건조방법, 옷감을 접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었다.

1930년대 조선은 '인조견'의 시대였다. 비단 옷은 비싸서 입을 수 없었던 부인들도 돈이 없어 죽는다고 떠들면서도 인조견 저고리 하나씩은 너나없이 해 입었다고 한다.<sup>20)</sup> 옥양목 대신에 보들보들한 인조견을 만지면서 사람들은 일본을, 서양을, 신문명을 체감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사교과서에 인조견을 비롯한 다양한 옷감의 원사 및 제조방식을 담고 있었던 것은 그리 낯선 장면은 아닐 것이다.

또한 염색부분도 분석한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다. 당시 가정에서의 염색이 일상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염색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교과내용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920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

18) 허보윤(2003), "보던걸의 등장", 『신여성을 읽는다』 수유+너머 겨울강좌 자료집.

19) 이 교과서는 부록 이하가 낙장이 되어 정확한 쪽수를 알 수 없다.

20) 『신시대가사교본』의 경우 양로와 간호를 대단원으로 묶고 있지만, 양로와 간호를 중단원인 '장'으로 하지 않고 전편-후편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또 2편 가정관리는 전편 재산의 관리, 중편 가무(家務)의 관리, 후편 가정의 순차로 구성되어 있다.

되는 생활개량운동의 가장 핵심적 내용의 하나는 의복개량이었다. 김일엽은 의복은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한 정신이며, 문화가 향상될수록 의복에 대한 미적 욕구는 더해간다고 말한다.<sup>21)</sup> 그런데 조선의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가슴을 꽉 조이게 만드는 치마와 '흰 옷'이었다. 흰 옷은 쉽게 더러워지기에 너무 많은 여성의 노동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sup>22)</sup> 따라서 색깔옷을 입어 빨래를 덜도록 하자는 것이 의복개량운동이었다.<sup>23)</sup> 이러한 염색 옷 입기의 실천은 여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실천되고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입었던 교복은 대부분 색이 있는 옷이었다. 1886년 개교한 최초의 여학교 이화학당은 러시아제 붉은 목면의 치마저고리를 교복삼아 학생에게 입혔으며, 숙명은 자주색의 양장 혹은 한복을 입도록 하였다. 반면 최근의 가정·가사교과서와 달리 의복구성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재봉' 교과목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 B. 식품 영역

① 영양: 인체의 화학적 성분, 신진대사, 식품과 영양소, 식품의 사명(신체와 식품, 정신과 식품, 경제와 식품), 식품과 전강, 식품의 가치(열량, 소화흡수, 기호도), 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회분(灰分), 비타민-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항피열성 비타민-, 무기염류), 영양가, 소화, 열량.

② 식품: 식물성 식품(곡류, 두류, 야채류, 해조류, 벼섯류, 과일류, 감미과(甘美科)), 동물성 식품(육류, 우유, 계란), 제조식품, 조미품(조미료, 사당(砂糖), 향신료), 기호품(음료-차, 커피, 코코아, 주류, 청량음료-, 향신료, 꿩연과(喫烟科), 보존식품), 식품분석표(보는 방법, 식품분석표에 의한 영양가 계산), 육류의 영양과 경제, 우유·계란과 경제.

③ 조리: 조리의 의미, 조리의 종류, 조리의 필요, 조리의 준비방법(야채·생선·양계류의 조리방법), 조리방법(삶기, 뒤기기, 찌기, 굽기, 볶기, 끓이기, 쥐사), 종류별 가열요리법의 특색, 조리에 관계된 주의사항, 일본요리의 특성.

④ 식품의 저장: 부패의 원인, 저장법, 방부(防腐)

의 방법.

⑤ 식단: 식단의 필요, 식단의 방침, 식단의 실례, 식품의 배합(식량(食量), 단백질의 선택), 향응식의 식단.

⑥ 식생활 예절 및 상차림: 식탁(식사시간의 준수 등 식사의 규율).

⑦ 연료: 연료의 분류, 연료와 경제, 연료의 종류(나무, 목탄, 석탄, 석유·휘발유, 석탄가스, 전열).

⑧ 기타: 조리대, 주방기구(요리용 계량기).

식품 영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식품이 영양적 측면에서 조망된다는 것이다. 즉 음식은 단순히 '먹거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학적 측면에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이다. 똑같은 음식도 영양소가 덜 파괴되게 섭취하도록 조리하는 것이 주부의 중요한 사명이 되었다. 이러한 일면은 가사교과서에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매체에서도 끊임없이 유통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숙명여학교 교사 임숙재는 영양이 덜 손실되는 조리법을 소개하면서, 고기는 물에 넣지 말고, 야채는 오래 끓이거나 굽지 말라고 말한다.<sup>24)</sup> 당시의 식생활은 영양소를 중심으로 한 지극히 서구적인 과학주의의 관점에서 조망되고 있었다.

#### C. 주거 영역

① 주거생활: 수양도장으로서의 집, 주거의 목적,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주택구조상의 종류(일본식, 서양식, 절충식), 주생활의 양식(좌식생활, 의자생활).

② 주택의 건축: 부지의 선택(위생상, 교육상, 화재상), 기초공사, 주택의 주요부분(옥근, 천정, 마루, 벽, 창, 문), 지반과 기초공사, 주택구조 및 그 득실, 가옥의 건축(시공법), 공사비의 개요.

③ 주택의 설비와 장식:

④ 실내설비: 조명, 난방, 냉방, 환기, 채광(천연채광, 인공채광), 연료, 등화(燈火), 다다미, 문, 창, 깔개, 내부 마무리.

⑤ 위생적 설비: 부지의 선정과 일당, 급수(우물물, 우물물의 질, 우물의 구조, 우물물의 개량), 배

21) 김일엽, "의복개량문제 나의 의견과 실제 경험 의복과 미감(美感): 개량의견 몇가지", 『신여성』2권11호(1924. 11), p.24-26.

22) 임숙재, "세가지를 통틀어 이러께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신여성』3권1호(1925.1), pp.29-31.

23) 일기자, "簞易한 생활개조", 『신여성』4권10호(1926.10), pp.29-32; 박희도, "의복과 주방이 진급", 『별전곤』통권16·17호(1928.12), p.26. 김현실, "의복의 개량점", 『별전곤』통권16·17호(1928.12), p.34.

24) 임숙재, "세가지를 통틀어 이러께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신여성』3권1호(1925.1), pp.29-31.

수, 조리대, 변소, 욕실, 세탁실, 빨래 너는 곳, 쓰레기장.

⑤ 실외설비: 대문, 담장, 정원, 채원(菜園), 과수원, 오염의 처리.

⑥ 방: 방의 종류(거실, 주인방, 주부방, 부엌, 식사실, 현관, 벽장, 계단), 방 배치상의 주의점.

⑦ 주거관리: 가옥 및 집기의 손질, 수리, 청소.

⑧ 셋집, 이사.

⑨ 비상시의 수칙: 지진, 화재, 수해, 도난, 풍해, 방공.

주거 영역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부분은 주택의 건축과 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가사교파서에는 가옥의 평면도와 함께 각 방의 모습을 삽화로 소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거생활은 일본풍의 것도 있었지만 지극히 서구적인 주거생활이었다. 또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주거관리 분야에는 지진, 화재, 수해, 풍해 등 재해시의 수칙을 제시하고 있었다.

1920년대 이후 조선에서는 '신가정'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근대적 가족생활의 기원이라 할만한 '신가정'이란 개념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20년대 문화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 지식인인 박달성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가정'의 구성요소로 이상적 아내와 이상적 직업과 함께 이상적 주택을 말하였다. 그는 안방, 마루, 전년방, 부엌, 창고, 사랑방으로 구성된 '열간집'을 이상적 주택으로 꿈꾸고 있었다.<sup>25)</sup> 박달성이 말하는 이상적 주택은 가사교파서에서 말하는 주택과 거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만한 가정"이라는 이상적 가정에는 "서양조선절충 가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6)</sup> 이상적 가정이 형성되는 데 '주택'은 매우 중요한 하위 영역이었다. 따라서 당시 부유한 지식인들 중심으로 '문화주택'이 건축되고 있었다. 붉은 벽돌집에 큰 정원문, 완만하게 끼인 그럴듯한 빗장, 높이 단 문패, 앞뜰과 옆뜰의 꽃밭, 마당의 벤치와 아이들을 위한 작은 마차, 꽃 모양의 도배지, 청색 '카-텐', '태-블' 크로스로 덥힌 티-테블'은 신식생활이 가능한 '문화주택'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그러나 이러한 문화주택은 '문명함'을 드러내는 한 방식이자 당시의 조선이 처한

당면과제를 고려하지 않은 '허영'의 한 지표로 비난받았다. 박인덕, 윤성상, 김자혜 등의 신여성이 '문화주택'을 지었다는 소식은 동경과 질타의 시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말 많은 소문이 되어 장안을 떠돌고 있었다.<sup>28)</sup>

#### D. 양로 영역

① 효양의 의미: 존경, 동정.

②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징.

③ 노인부양에 관한 구체적 내용: 의복, 식품, 주거, 운동, 목욕, 수면, 보양.

④ 노년에 혼한 질병 및 그 주의사항.

양로로 함은 노인부양을 의미한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양로영역의 비중은 매우 낮아, 佐保會의 「가사신교파서」의 경우 전체 185쪽에서 단지 3쪽에 불과하다. 이렇듯 낮은 비중을 차지한 양로가 왜 대단원으로 편제되고 있었을까?

노인의 부양은 유교적 가족윤리에서 '효'와 직결되었고, 효행은 여성의 가장 큰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 그야말로 노인은 '무용(無用)'한 존재가 된 것이다.<sup>2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이 근대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천왕'에 대한 '효'와 효의 연장선에 있는 '충'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었으며, 식민지 정책에서 일본국에 대한 충효정신은 황민화 정책에 매우 유효한 기제였다. 전체내용중 1.6%~5.1%로 할애된 양로 영역에서 '노인'은 오로지 '부양의 존재',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만 비춰지고 있었지만, 노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효'는 서구적 지식을 습득한 현대적 가정주부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부덕(婦德)이었다.

#### E. 간호 영역

① 간호에 관한 일반적 준수사항: 간호의 필요, 간호의 종류, 의사의 선정, 진찰받을 때의 주의사항, 간호인의 수칙(간호인의 신체, 간호인의 정신, 문명인의 취급), 왕진, 문병.

② 병구완: 병상(病狀) 관찰(안색, 체온, 맥박, 호흡, 변통, 기침, 각혈·토혈, 구토, 복통, 경련, 발한, 악한(惡漢), 전율, 허탈, 욕창, 청결, 수면, 운동, 정

25) 박달성, "내가 생각하는 가정과 생활: 이 글을 미혼남녀에게 주노라", 『신여성』2권6호(1924.9) pp.53-59.

26) 김장환, "동광주간 주요한씨 가정", 『신여성』5권11호(1931.12), pp.67-68.

27) 진숙봉, "남과 다른 우리 가정", 『별건련』통권 16·17호(1928.12), pp.40-41.

28) 색상자, 『신여성』7권8호 (1933.8), p.83.

29) 대한매일신보, 1909.9.23; 1909.10.20

신의 안정, 목욕, 간호일기), 환자의 병실 및 거처(위치, 크기, 설비, 청결, 정돈), 환자복, 침구, 환자식(환자식의 종류, 분량, 식사법), 회복기 환자 및 위독자의 간호, 사망 후의 처치.

③ 약: 약의 종류, 물약, 환약·정제, 유제(油劑), 외용약(흡입약, 합수약(含嗽藥), 산포제, 연고, 점적제(點滴劑), 고약(膏藥)), 점질, 올바른 약용법.

④ 봉대법: 봉대의 목적, 봉대재료, 봉대의 용법.

⑤ 응급상황시의 조치: 치통, 타박, 창상, 화상, 동상, 물린 상처, 쏘이 상처, 출혈, 출도, 식중독, 익물(溺沒), 중독, 골절, 탈구, 복통, 고열, 감전, 인공호흡, 눈에 들어간 이물질 제거.

⑥ 전염병: 종류(유행성 감기, 폐결핵), 전염의 경로, 각종 전염병의 증상, 예방법(저항력 증대, 병원체 이동 차단, 병원체 침입 차단, 예방주사, 격리, 소독), 소독법(일광소독, 소각소독, 열소독, 약물소독), 소독회사.

⑦ 가정상비약(상비약의 필요, 상비약의 종류), 가정 상비기구.

지금의 가정과목과 비교했을 때 식민지 가사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간호영역'이다. 간호 영역은 가사교과서 하권에서 '육아'와 '가정경제'와 함께 중요한 하위 영역이었다. 가사교과목에의 간호 영역의 정착은 근대적 의료체제의 확립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물론, 생리나 위생 교과목에서 이 부분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간호 영역에는 신체가 무엇이고, 신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와 함께 신체를 어떻게 돌보는가 하는 방식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의사의 말에 절대적 신뢰를 요구하는 가사교과서를 통해 의사, 병원, 등 근대적 의료기구의 권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었다.

또한 '간호'영역에서는 몸이 말하는 각종 증후를 읽어내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의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서, 각종 소독법으로 전염병을 예방·차단하는 것이 요구되는 가운데 가정 안에서의 규율은 더욱 춤출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치밀한 규율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여성인 주부였다. 주부의 역할은 앞서 열거된 진 질병의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분화·전문화 되어 갔다. 동시에 '간호'영역은 부양자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규정한다. 즉 간호영역이 갖는 효과는 어린이와 노인, 환자와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학생이 탄생하기 전 여성들

은 시부모와 남편, 자녀의 병구완을 해야 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것을 여행(女行)으로 고착시킴과 동시에 전문적 영역으로 만들고 있었다.

#### F. 육아 영역

① 모성: 어머니로서의 의무, 어머니로서의 기쁨, 좋은 어머니와 가정과 국가의 관계.

② 임신과 출산: 부인위생(부인 위생의 필요, 부인의 생리, 부인의 특별섭생), 임신의 징후(월경중지, 입덧, 유방의 증대, 태동, 부종, 변비, 요통, 치통), 임신시 신체상 주의사항(의복·음식, 운동, 목욕, 수면), 임신시 정신상 주의사항(마음, 행동), 출산준비(마음의 준비, 산의, 기저귀, 침구, 산구, 산파, 산원(產院)), 출산과정, 산후의 섭생(신체, 정신, 음식, 청결, 변통(便通)), 출생신고.

③ 아동발달: 건강아의 발육, 건강아의 특징, 심신의 발달, 건강개요, 표준체격.

#### ④ 보육:

⑤ 신생아 돌보기: 보육의 이해, 보육의 목적, 신생아의 특징, 신생아 기르기(입욕, 제대(臍帶), 변통, 기저귀, 의복, 수면, 울음소리, 안는 방법, 업는 방법), 수유의 종류, 모유수유(모유의 필요, 장단점, 방법, 주의사항), 유모수유(유모선정, 유모지도), 우유수유(모유와의 비교, 장단점, 우유의 선택, 수유방법, 우유 소독법, 수유기구), 연유수유(장단점, 조제), 혼합수유, 유치(유치가 나는 시기, 유치보호, 유치기 때의 주의사항), 이유(적절한 이유 시기, 이유 방법, 이유식).

⑥ 유아 돌보기: 유아의 의복(옷감, 유아복의 구성, 착용 방법, 부속품), 유아의 식품(주식, 간식), 유아의 거처(아동방의 위치, 양식, 설비, 정돈), 유아의 수면(수면시간, 침구, 수면상태), 신체의 보육, 목욕, 마음의 보육(성실, 예의, 동정, 규율 지도), 지능발육, 예절(소아의 일반적 특성과 예절, 예절지도, 가정교육), 놀이, 운동, 장난감(의미, 선택시 주의사항, 지도), 그림 그리기, 만들기, 그림책, 육아일기.

⑦ 소아병: 소아에 혼한 질병, 신생아 농루성 결막염, 유아영양장애, 소화불량, 아구창, 홍역, 백일해, 뇌막염, 간질, 이질, 폐렴, 회충, 디프테리아, 천연두, 성홍열, 경련, 각기병.

⑧ 취학: 의무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 취학 후의 주의사항, 학교와의 연락(연락의 필요, 연락방법), 친구사귀기, 취학 후의 주의사항.

⑨ 아동관련 시설: 유아원, 탁아소, 소아보건소.

육아영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신·출산과 아이 기르기로 나눌 수 있지만,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육아영역은 '임신-출산-기르기(신생아→유아기→영아기)-취학'의 순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먼저 교과서의 저자들은 예의 없이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에서부터 육아의 내용을 시작하였다. 어머니의 의무가 강조된 채, 임신과 출산 역시 '보성보호'의 차원에서 설명 된다기보다는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목적으로 한 '태아보호'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보육영역에서는 특히 '신생아' 기르기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 당시 한 국가의 힘의 원천은 '건강한 국민'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높은 영아 사망률은 국력의 엄청난 손실이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방법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혼한 질병이 세세히 설명되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여 건강한 국민으로 양성하는 것은 여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 이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아이의 '질병'은 어머니의 잘못으로 귀인한 것이다 된다. 이러한 일면은 잡지『신여성』의 기자 송계월이 경성의 한 맹아원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수용된 아동을 보는 시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설을 방문한 후 그녀의 소감은 '어머니의 무지함이 병신자녀를 낳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불가피한 선천적 천형이었던 '병신'은 근대지식의 옷을 걸치게 되면서 '질병'으로 설명되었고, 동시에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었다. 송계월은 맹아원에 일본학생보다는 조선학생, 조선학생 중에서도 '무산아동', '무식한 가정의 어린애'들로만 봄비는 까닭은 어머니의 무지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어머니의 무지가 "조선의 어린이들을 이와 같이 불구자로 만들어 노은 것"을 목격하면서 그녀는 "장차의 새 어머니"가 될 여성은 자녀 즉 "제이세 국민"을 잘 양육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잘 행"하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었다.<sup>30)</sup> 그러므로 여학생 즉 신여성에게 어머니가 될 여성의 생리는 물론, 임신과 출산, 아동발달의 원리, 아동의 질병 등에 관한 지식습득은 필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학생들은 '지식'으로서 어머니의 의무와 기쁨을 학습하면서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을 획득해야 했다.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학생의 '어머니됨'에 관한 학습은 '여성=어머

니=가정'이란 구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었다.

#### G. 가정경제 영역

① 경제 및 가정경제의 이해: 여자와 가정경제, 가정경제의 의의 및 요지, 가정경제의 특징, 가정경제의 개선(가족본위의 경제, 사회협조의 경제, 재화소비의 진보-정당한 욕망, 적당한 재화, 합리적 소비-, 물가(물가의 의의, 물가변동의 원인), 재산의 종류(유형재산, 무형재산), 재산목록(양식, 기입, 이익, 예), 재산에 있어 주의사항, 화폐제도(화폐사용의 주의사항, 지폐의 의의, 지폐의 종류).

② 수입과 지출: 수입의 의의, 수입의 종류, 소득의 종류(재산소득-지대, 이자-,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이윤-), 수입의 안정(수입원의 다양화, 1가족 2인 이상 근로소득에 종사), 수입의 증가(재산소득의 증가, 근로소득의 증가), 지출의 의의, 지출의 종류, 지출의 분배(지출과목, 지출과목의 분할, 과목의 증감, 지출비 분배율-가사비 지출총액, 지출비 분배율-, 지출의 감소-염가매입, 소비의 합리화-), 지출에서의 주의사항.

③ 예산 및 결산: 예산(의의, 필요, 전적, 실례, 실행), 결산(의의, 필요, 방법), 잉여·부족시의 조치.

④ 저축·보험 및 부채: 저축의 의의, 저축의 필요, 저축의 종류(우편저축의 의미, 우편저금, 은행예금, 신탁, 유가증권), 저축방법, 보험의 의의 및 필요, 보험의 종류(인사보험, 재산보험), 부채시의 주의사항.

⑤ 가계부기: 가계부기의 필요성 및 그 효용, 가계부기의 주의사항, 가계부, 기장법.

식민지 시기 일상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장은 아마도 경제적 공간이었을 것이다. 은행이 생기고, 화폐제도가 재편되고, 채권·보험 등의 금융상품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하고 구매하기에 앞서 이것의 이용방법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의 지식인들은 장래의 '주부'가 될 여학생은 수입과 지출, 예산과 결산의 합리적 소비생활에 관한 내용을 학습함은 당연한 바로여겼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시장경제에 대한 것은 여학생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조선인들에게 낯선 것이었다. 따라서 계몽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시장경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식민지 시기 가장 대표적인 여성종합잡지인 『신여성』도 이러한 일면에 부응하여

30) 송계월, "누구의 잘못인가 맹아원에서 드룬 이야기" 『신여성』5권5호(1931.6), pp.93-95.

가정경제에 관한 많은 논설을 실고 있었다.<sup>31)</sup> 경제는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쏘 살림살이 하는데 필요 한 보통상식”이기에 이 상식의 부재는 비난거리가 된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가정부인은 반드시 경제를 알아야” 했다.<sup>32)</sup>

한편, 가정경제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일면은 ‘가계부기’의 중요성이다. 가사교과서에는 예외 없이 가계부기에 관한 실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가정계몽에 관한 일련의 글을 집필했던 방정환은 ‘가계 편’에서 계획적인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주부 역할을 설명하면서, 가계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었다. 필요한 물품을 “미리 예산해 노코 그리고 그 예산에 어그 러지지 안토록 써나가기 위하여 매일매일 쓰는 돈을 치부책에 적어가면서 항상 예산과 맞추어 가야” 하는데, 이때 그것을 실현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 계부’라는 것이다. 조선의 “집집에 가계가 분명하여지고 가계부가 실시만 되는 날”이면 조선의 가정이 바로 “개량될 것”이라는 주장 속에서 당시 생활개선의 핵심에 가계부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 H. 가정관리 영역

① 가정(家庭)의 의미: 우리나라의 가정조직, 우리나라 단체와 공통된 가족제도, 가정의 평화, 혼인(혼인의 의의, 혼인성립의 요건), 가풍(가풍의 의의 및 그 내용), 주부(주부의 책임과 자각), 가정의 선량(근 면, 절약, 청결, 정돈), 선량한 가정(평화, 가풍, 여자의 본분).

② 가정관리의 방침: 과학주의(설비의 완성, 질서의 규정, 분담의 확장), 인격주의(자치와 협동), 집안 일의 처리(질서와 규율, 집안일의 분담 및 협력).

③ 가정관리의 방법: 집안일(일일의 행사, 일주의 행사, 일개월의 행사, 년중행사), 가재(家財)(가재의 정리, 보존), 서류, 행사(행사의 종류, 행사의 사회적 규율), 교제(심정, 예의, 방문, 서로 주고받음, 지우, 친척, 교제의 필요, 교제의 방침, 교제의 방법), 공적 의무(국가, 사회), 고용인, 가정일기.

가정관리 영역은 구체적으로 가정의 의미, 가정관리의 방침과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여기에는 이

상적인 가정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설명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근면, 절약, 청결, 정돈, 평화, 과학, 인격, 규율, 분담과 협력, 계획, 예의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정은 ‘따뜻한 쉼터’라기보다는 절제하고 훈련해야 하는 ‘규율’의 공간에 더 가깝다. 식민지 시기 가정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면 가정 안에 내재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은 ‘단란, 원만, 평화’와 같은 것이었고, 이것은 행복한 가정의 전형이 되어 ‘스위트 홈’으로 불리고 있었다.<sup>34)</sup> 따라서 여성잡지에는 이러한 행복한 가정생활의 모습이 많이 소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가사교과서에서는 이러한 행복한 가정생활의 모습보다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치우쳐 있다. 평화와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규율이었고, 가정은 이 규율을 가족원 모두가 습득하는 훈육의 장이었다. 그리고 가정에서 ‘훈련된 신체와 정신’은 부국강병한 국가 건설에 유용한 자원으로 소모되어야 했다.

#### 4. 가사교과서의 함의: ‘가정주부’의 탄생

1920대-1930년대 대표적 종합잡지인 『별전곤』은 당시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잡지이다. 이런 『별전곤』 16·17호에는 “현하(現下) 조선에서의 주부로는 여교출신이 나흔가 구여성이 나흔가?!“에 대한 지상토론이 열렸다. 여기에서 김학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네 가정에서 - 더구나 현하 이십세기에 안져 서 캐캐묵고 곰팡이 써른 십팔세기의 두뇌와 그 제도를 고대로 가만이 가지고 있는 구식주부야 당초에 어데다가 소용이 닷겟슴닛가. … 제이세 국민을 잘 길고 잘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답도 주부의 중대한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 그 국가에 그 사회에 튼튼하고 씩씩한 일꾼을 내보내고 못 내보내는 것이 그 집 주부에게 전책임이 있다고 볼 때에 엇지 이 문제를 경홀(輕忽)하게 취급할 수 있겟습니까. 시대의 추이가 어찌케 되는지 방위의 동서남북이 어대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순구식 부인으로서 시대의 바람과 조수를 드러마시고 뛰어나아와서 무

31) 예를 들면, 김선비, “가정경제란: 금본위제의 설명”, 『신여성』5권11호(1931.12), pp.52-53; 정수일, “가정경제란”, 『신여성』6권10호(1932.10), pp.42-43; 정수일, “가정경제란(2) 경제지식과 조선부인”, 『신여성』6권11호(1932.11), pp.58-62.

32) 정수일, “가정경제란”, 『신여성』6권10호(1932.10), pp.42-43.

33) 방정환, “주부계몽편 살림살이 신강의: 가계편”, 『신여성』5권5호(1931.6), pp.96-101.

34) 주은월, “스윗트, 흄 행복한 가정”, 『신여성』2권5호(1924.7), p.27.

엇을 알겠다고 쏘 무엇을 해보겠다고 날뛰는 제이 국민을 교양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조금 심한 말가트나 마치 결혼식장에 장구(葬具)를 끄집어 내는 것과 가튼 일이라고 하고 십습니다.<sup>35)</sup>

김학보는 구식여성 즉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 을 "꼴동품"이라고 말한다. 20세기의 "신"을 흡입하지 못한 그녀들은 결혼식날 장례기구를 준비할 정도로 '무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가정주부가 될 자격은 오직 학교교육을 받은 '신여성'에게만 주어지고 있었다. 조선의 가정과 사회가 "일신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여자는 모다 모와다가 엊 던 공장에서 노동"이나 시키고 조선의 남자를 "신여자 와 결혼"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sup>36)</sup> 신여성은 구여 성과 달리 ① 지식이 있음으로 이해력이 있고, ② 위생관념이 있으며, ③ 가사처리를 과학적으로 할 줄 알고, ④ 수입과 지출의 관념으로 '가정일기' 등을 작성하는 등 "계산"에 밝고, ⑤ 자녀양육을 바로 하며, ⑥ 편지나 전보를 볼 줄 알며, ⑦ 구여성은 신문 하 나 정리할 줄 모르지만 신여성은 원고도 써주고 장부 도 작성하는 등 남편 일을 도와주므로 남편의 "동무" 가 될 수 있다. 구여성은 지저분하기 짹이 없지만 신여성은 청결하다. 구여성은 아이가 아플 때 '무당'을 찾지만, 여학교 출신의 여성은 '의사'를 찾는다. 무식 한 구여성은 지구가 자전하는 줄도 모르고 해와 달이 야기를 하지만, 신여성은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구여성은 천연두 예방에 필수적인 종두접종을 기피하지만, 신여성은 그 반대이다. 그러므로 신여성이 "사람"이라면, 구여성은 "기계"에 불과한 존재였다.<sup>37)</sup>

1920년대 사회적 범주로 정착된 '신여성'은 곧 여학생 혹은 여학교 출신 여성을 의미한다. 이런 신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현모양처'였으며, 이것은 '주부'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당시에 주부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로 제시되었다. 1920년대의 '성과학'은 여성의 심리를 궁구한 결과 여성의 천직은 '가정'이라고 말한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천성이 온화하고, 애정이 풍부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또한 면밀한 주의

력을 가"졌기에 남편을 도와 "일체의 가사를 처리하고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주부가 되어야 했다. 가정 내의 일을 "완수"하는 것은 주부된 여성의 당연한 임무로 제시되었다(吉村千鶴, 1935).

... (평화로운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일이 행해진다. 즉 가족 생명의 보존, 자녀의 교육, 환자의 간호, 일가의 관리, 가족원의 수양·교제, 국가·사회에 대한 의무 등이 그것이다. 이것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요령을 습득해야만 한다. ... 이에 대해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집 안의 주인 주부이고, 특히 주부가 그러하다. 주부의 가족에 대한 헌신적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커다란 힘으로 가족을 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돋고, 나아가 사회에 대한 선행의 기초가 된다. 주부가 사회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보통 가정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족원에게 어느 부분을 분담시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어떤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총괄하여 그 책임을 가진 이는 주부이다. (佐保會, 1937)

1920-30년대 여성을 둘러싼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가 '경제적 독립'이며, '차립'이었다. 남편에게만 의지하여 사는 여성은 "종녀자", "기생충", "흡혈귀"였으며 매일 한 남자에게 "생식기"를 파는 창녀였다.<sup>38)</sup> 이렇게 여성도 일을 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사회적 '일'이 가정에서의 '주부' 역할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佐保會은 말한다.

여성에게 있어 주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매체가 바로 가사교과서였다. 여성은 주부로서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문명을 습득하여 가정에서의 생활개선을 도모해야 했고, 따라서 "완전한 주부"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서 가사과의 교육내용을 학습해야 했다.

통틀어 가정 또는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의복·식품·주거에 관한 일체의 일에서부터 자녀의 포육, 가족의 건강증진, 환자의 간호, 노인의 효양, 친척·이웃과의 교제, 가정경제의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가정 내 의무의 전반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되지 않고 솔씨 좋게 수행하는 것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학문

35) 김학보, "구여자는 충실했던 노예", 『별건곤』통권 16·17호(1928.12), pp.93-94

36) 조기간, "구여자는 가정에 두지도 말자", 『별건곤』통권 16·17호(1928.12), pp.97-98.

37) 이성환, "신여성은 철덕", 『별건곤』통권 16·17호(1928.12), pp.91-92.

38) 김파, "조선여성의 향할 길(10): 특히 신녀성들에게 말하야 일꾼녀자가 되기를 바란다", 『신여성』4권9호(1926년 9월), p.13.

적으로 고찰하고, 학문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가사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가사과를 배우는 사람은 한편으로 장래 처가 되고 어머니가 될 때의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가정(家政)에 관한 최신지식을 습득하고, 한 가정의 멀로서 부모를 도와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를 자기 가정에 적용하고 집안의 행복 증진을 이끌어가는 것은 일국의 번영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近藤耕藏, 1934)

이상에서 말하고 있듯이 가사과 목적은 가정의 생활개선이었고, 이를 담당하는 것은 '주부'였다. 그렇다면 가사과의 목표, 즉 주부가 실현해야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이었을까? 가사교과서는 먼저 '가정'을 말하고 있었다.

가정은 한 가족이 서로 모여서 생활하는 인생의 행복한 휴양소이고, 또 동시에 마음의 수양, 문화의 향상, 활동의 책임지(策源地)이다. (甲斐久子, 1929)

가정은 실제로 심신의 위안소·수양소·활동의 준비소이고, 또 이 원동력을 일으키는 장소이다. 사람이 전전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 아닐까. (佐保會, 『가사신교과서 상권』, 1937)

종일 밖에서 일하고, 심신이 모두 피곤해도 일단 집에 귀가하면 훌연 기분이 산뜻해지고, 원기를 회복하고 또 내일의 근무에 힘쓸 수 있는 것도 가정 안의 이 화목함과 운정 덕분이다. 이러한 둘도 없는 낙원에서 자란다면 어느 누구라도 사회·국가에 있어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다. (吉村千鶴, 1935)

이처럼 가정은 '따뜻한 곳'이어야 했다. 가사교과서에서 설명되는 가정은 전장터 같은 '일터'에서 돌아온 사람을 끓 쉬게 만드는 쉼터였으며 휴양소였다. 가정은 세파에 찌든 심신을 치유하는 장이었으며, 내일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이었다. 그리고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것은 '주부'인 여성의 몫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주부가 있는 완전한 가정은 '일터'를 위한 것이었고,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甲斐久子(1929)는 "가정의 습관"을 개선하는 가정개량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체(國體)"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나라에 보탬이 되는 성의(誠意)는 나아가 충군애국의 정서적 근간이 되고, 일가를 이루어 가업에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을 세워 국가를 무사태평하게 하는 최상의 방책이기에 장래 가정을 이루는 자는 마땅히 이 대본(大本)을 명심해야 한다.(甲斐久子, 1929)

이렇게 가사교과서는 여성을 '주부'로 만들고 있었으며, 주부로서의 여성의 사명은 합리적·규율적으로 가사를 처리하면서 가정을 쉼터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국가'의 근본을 세우는 것으로 그 중요함이 부각되고 있었다.

식민지 시기 여성에 대한 사회주의 계열의 목소리는 '경제적 독립'을 쟁취하라는 것이었지만, 여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일할 만한 공간은 매우 적었다. 여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해도 잘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소수를 제외하고 '가정'은 여학교를 졸업한 신여성들의 유일한 선택지였을 것이다. 구여성과 마찬가지로 '가정'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던 대다수의 신여성들은 배운 여성답게 바람직한 여성의 삶이었던 현모양처 노릇, 가정주부의 노릇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신여성'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모양처의 길을 벗어난 여성, 주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여성에 대한 질타는 매우 가혹한 것이었기에 가정은 신여성에게 자신의 '新'을 드러내는 공간이자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었다.<sup>39)</sup>

## V.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 시기 가운데에서도 제2차 조선교육령시기(1922-1937)에 해당하는 가사교과서의 외형과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에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한 8권의 가사교과서는 여학생의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여학교, 실과고등여학교, 여자사범학교의 가사교과목을 위한 교과서였다. 당시 가사교과는 일본교육정책이 가장 주력한 '국어'(일본어) 다음으로 중시되었던 교과목이었다. 가사교과목의 저자들은 자

39) 식민지 시대 이상적 여성상이었던 '현모양처'가 신여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미경(2004) pp.89-91 참조.

신의 책의 편제방향을 서문격인 서언과 범례에서 밝히고 있었는데, 그것은 '현대적·최신식'의 가정생활을 지향하면서, 교과내용이 일상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실용적·응용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학생들이 교과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 등의 삽화를 많이 삽입하였으며, 계절별로 교과 내용을 배열하는 등 교사의 교수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가사교과서는 특히 수신과 이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교과목이었다. 이와 같은 가사교과서의 교과목적은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생활개량'에 있었다. 저자들은 한결같이 가사시간에 학습한 일련의 교과내용으로 가정생활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였다.

둘째, 가사교과서의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일본어로 쓰였으며 세로짜기이다. 판형은 국판( $150\times 210$  혹은  $150\times 220$ )이며, 본문의 지질은 중질지, 삽화는 아트지나 백상지를 사용하였다. 본문의 서체와 색도는 각각 명조와 먹색단도이며, 제본은 철사로 매는 방식인 호부상이다. 또 교과서는 '겉표지-속표지-화보-머리말-목차-본문-부록-판권면-뒤표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내용의 자료구성은 대-중-소 단원아래 삽화, 표, 보충자료로 되어있다.

셋째, 가사교과서의 교과내용은 크게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한 가사교과서는 순서만 다를 뿐 상권은 의·식·주 영역으로, 하권은 양로·간호·육아·가사경제·가정관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이러한 가사교과서는 집안일을 과학적, 효율적,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여성에게 요구하였고, 이것은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을 강화하였다. 가사교과서를 포함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 등의 매체에서는 반복적으로 가정주부인 여성의 역할이 설명되는 가운데 가정주부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조망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주장의 결과로 가정주부인 여성에게 '가정'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 공간이 되었다.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는 여성과 가정에 대한 당시의 '시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공간이었다. 학교라는 권위적 제도에서 실천되는 가사교과서는 여성이 가정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당위'를 몸으로 체득하게 만들었다. 또한 가사교과서는 당시의 이상적 여성상의 전형이었던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장이었으며, 위생적이고 규율적인 가정생활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가사교과서는 서구적 생활을

지향하면서 '전통'과의 단절이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효와 충, 그리고 가정인으로서의 여성적 정체성은 '전통'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가사교과서의 교과내용은 '가사'에 관한 지식의 전달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균면·청결·절약·질서 등의 규율에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었다. 가사교과서는 '가정(家庭)'을 휴식의 공간으로 정의내림과 동시에 이러한 가정을 구현하는 뜻을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사교과는 우리 사회에 '남자=사회, 여자=가정', '남자=임금노동, 여자=가사노동', '사회=일터, 가정=쉼터'라는 근대적 성별분업과 공사구별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도구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식민지 가사교과서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로 교과서의 외형적 분석과 함께 목차와 머리말을 중심으로 교과영역과 교과목적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가사교과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는 의·식·주·양로·육아·간호·가정관리·가정재산 등 각 교과영역별 목표와 그 의미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식민지 가사교과내용에 대한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가사교과서의 통시적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교육이 탄생하기 전 전통적인 여성교육이 학교교육으로 수렴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연속과 단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혼히 여성교육의 시작이 여성해방의 단초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교육은 여성을 더욱 '여성답게' 만들고 있었다. '봉제사 접빈객'으로 말해지는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가장 대표적 '여행(女行)'이 여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듯이 식민지 시기 '여성'에 대한 교육 역시 여성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전통적 여성교육이 학교라는 근대적·제도적 여성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내용의 '연속'과 '단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사교과목은 '수신'과 '이과' 교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를 교과목을 포함하여 '위생' 등의 교과목과 가사교과목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실제로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목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별전곤』과 『신여성』의 잡지에서 말해지는 가정·가사 교과목은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가르친다는 등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식민지 시기

가사교과목의 현주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여학교『교지』를 분석한다거나 여학교를 다녔던 노인을 심층면접 하는 등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당시의 가사시간을 재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 1차자료

##### 〈가사교과서〉

- 甲斐久子(1929). 현대가사교본 상. 경도: 성야서점.  
 近藤耕藏(1934). 신편가사교과서 상. 동경: 광풍관  
 吉村千鶴(1935). 실지응용가사교과서 상. 동경: 개성관  
 越智基よ(1928). 신시대가사교본 하. 경도: 성야서점.  
 石澤吉磨(1930). 가사신교과서 하. 동경: 집성당.  
 佐保會(1937). 가사신교과서 상. 동경: 지성당.  
 佐保會(1937). 가사신교과서 하. 동경: 중등학교교과서  
 주식회사.  
 작가미상(1930). 최신가사교과서 하. 동경: 대일본도서  
 주식회사.

##### 『별전본』

##### 『신여성』

#### - 2차자료

- 김재인·양애경·허현란·유현옥 (2001). 한국여성교육의  
 변천과정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상치 (1987).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제도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원 (1996). 중학교 8종 가정과 교과서 비교분석:  
 제5·6차 교육과정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석 (1998). 개화기 과학 교과서의 발간실태와 내용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왕석순 (2003). 교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의 목표 규명을  
 위한 문헌고찰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77-99.  
 윤인경 (1996a).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I). 한  
 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윤인경 (1996b).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II).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2), 79-91.  
 윤인경 (1997). 중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III). 한

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133-143.

윤인경 (1998). 고등학교 가정 교과서 분석 연구. 한국  
 가정과교육학회지, 10(2), 87-99.

윤인경 (2001). 한국 가정과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  
 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2), 73-83.

이만규 (1988). 조선교육사 II. 거름.

이종국 (2001). 한국의 교과서 출판변천 연구. 일진사.

이연숙 (2001).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중학교 가정교과  
 서 가정관리분야의 단원의 변천과정(I).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3(1), 73-91.

이승구 (2001).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  
 집조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영숙·김영남 (2000). 중학교 교과서 식생활 내용 분  
 석: 가정·체육·과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  
 회지, 8(2), 53-63.

이은순·조재순 (1993).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주생활 단  
 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한  
 국가정과교육학회지, 5(1).

이정규 (2003).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주생활 단원  
 영역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5(2), 35-54.

이혜영 외 (1997). 한국근대학교교육 100년사 연구  
 (II): 일제시대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97-10.

장현숙·조필교 (1995). 중학교 가정교과서 식생활 및 의  
 생활 단원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활용. 한국가정교  
 육학회지, 7(2).

전경선 (1999).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단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미경 (2004). 1920-30년대 현모양처에 관한 연구: 현  
 모양처의 두 얼굴, 되어야만 하는 '賢母' 되고 싶은  
 '良妻'.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75-93.

전미경 (2002). 개화기 '남녀동등' 담론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계몽의 시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87-  
 101.

전미경(2001). 개화기 축첩제 담론분석: 신문화 신소설  
 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정미경 (1998). 중학교 가정 교과서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1).

정재걸 외 (1994). 한국 근대학교교육 100년사 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차미경 (1991).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혜 (1997). 초등실과 교과서 분석 연구 -6차 교육  
과정 중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2).

최정혜 (2002).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생활 영  
역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1), 15-25.

### 〈국문초록〉

식민지 시대 가사교과서는 일제의 가정개량론 정책을 이해하는 핵심이면서 근대가족, 가사노동, 가정주부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28년에서 1937년 사이에 발간된 8권의 가사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 교과서는 고등여학교 '가사' 시간에 사용되었다. 연구문제는 크게 교과서의 외형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서 저자들이 서론에서 밝히고 있는 가사교과서의 편제 방향은 '현대적', '최신식', '실질적', '응용적'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타 교과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그림과 사진 등의 삽화를 싣고 있었다.
2. 교과서 저자들은 가사과의 목적을 생활개량이라고 하였고, 가사시간에 습득한 지식과 규율을 통해 가정의 생활개량을 이루고자 하였다.
3. 가사교과서의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본문은 일본어 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국판(A5)이며, 지침은 비교적 좋은 깨끗한 중질지로 되어 있고, 명조체의 서체에 1단구성이며, 철사로 제본되어 있었다. 교과서 구성은 '결표지-속표지-화보-머리말-목차-본문-부록-판권면-뒤표지'로 되어 있다.
4. 분석한 가사교과서는 모두 상하권으로 구성되었고, 교과내용은 크게 8영역으로 범주화 된다. 상권에는 의, 식, 주 영역이 하권에는 양로, 간호, 육아, 가정경제, 가정관리가 수록되어 있다.
5. 가사교과서는 집안일을 과학적·효율적·계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부'를 만들고 있었고, 이러한 가사교과서는 근대적 성별역할을 고착시키는 효과를 냥고 있었다.